

2021년 1월 7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트럼프 지지자들 의사당 난입 후 매물 출회

추가 부양책 주목하며 중소형주 3.98% 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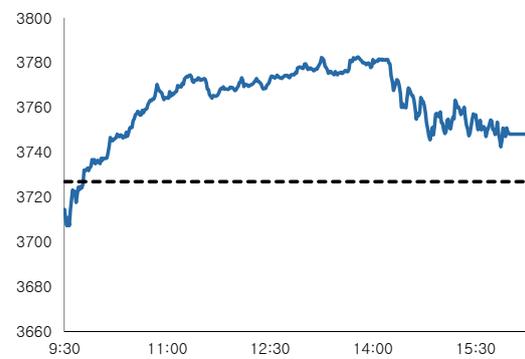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블루웨이브, 추가 부양책, 실적 기대, 의사당 폭력사태

미 증시는 조지아주 상원 선거 결과로 블루웨이브가 현실화 되자 은행, 산업재 등이 급등했으나 기술주는 급락하는 차별화를 보이며 출발. 그러나 추가 부양책 기대로 상승폭이 확대 되고 나스닥도 상승 전환에 성공. 특히 애플과 테슬라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 소식이 전해진 점도 긍정적. 다만, 장 마감 앞두고 미 의사당에서 트럼프 지지자들로 인한 폭력사태가 발생하자 매물 출회되며 마감(다우 +1.44%, 나스닥 -0.61%, S&P500 +0.57%, 러셀 2000 +3.98%)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 결과 민주당이 의회 권력과 행정부를 장악하는 블루웨이브가 현실화 됨. 이 영향으로 10 년물 미 국채 금리가 지난해 3 월 이후 처음으로 1%를 상회하고, 달러화가 장중 2018 년 3 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 이는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 심리가 확산 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 이에 힘입어 은행주가 급등하고 산업재, 에너지, 소재, 철강, 소매유통업종도 강세를 보임. 다만, 규제 강화 및 법인세 인상 우려를 '빌미'로 그동안 상승을 이끌었던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되는 경향을 보임. 오후 들어서 금리는 고용지표 부진으로 상승세를 일부 축소했으며 달러화는 약세폭이 컸다는 점이 부각되며 강세로 전환되기도 했으나 주식시장에는 영향이 크지 않음

장중 지수 상승 요인 중 하나는 추가적으로 1 인당 2000 달러 지급 관련 부양책 처리가 빠르게 진행 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유입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 펠로시 하원 의장이 선거 후 추가 부양책을 처리 할 것이라고 발표 했었기 때문. 또 하나는 3.4% 급락했던 애플(-3.32%)이 실적 개선 기대가 유입되며 장중 상승 전환 성공하자 대형 기술주도 낙폭이 축소되며 나스닥의 상승 전환을 이끔. 이렇듯 시장은 블루웨이브와 함께 실적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다만, 장 마감 앞두고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 의사당을 습격하는 등 폭력 사태가 발생하자 워싱턴 DC 가 통금을 발표. 이로 인한 미 사회 분열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대부분의 종목들에 대한 매물이 출회. 특히 오늘 장 중 낙폭을 축소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기술주들이 재차 낙폭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968.21	-0.75	홍콩항성	27,692.30	+0.15
KOSDAQ	981.39	-0.44	영국	6,841.86	+3.47
DOW	30,829.40	+1.44	독일	13,891.97	+1.76
NASDAQ	12,740.79	-0.61	프랑스	5,630.60	+1.19
S&P 500	3,748.14	+0.57	스페인	8,350.30	+3.20
상하이종합	3,550.88	+0.63	그리스	813.62	-1.05
일본	27,055.94	-0.38	이탈리아	22,734.32	+2.4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은행주, 산업재, 에너지, 태양광, 전기차 강세 Vs. 기술주 부진

블루웨이브가 현실화되자 글로벌 클린에너지 ETF(ICLN +7.20%)가 급등 했다. 퍼스트솔라(+8.17%), 선파워(+20.17%)등 태양광과 US스틸(+17.14%), 캐터필라(+5.57%), 엑손모빌(+2.55%)등 경기 민감주도 급등했다. 테슬라(+2.84%)는 여기에 모건스탠리의 목표주가 상향으로 강세를 보였고, 10년물 국채금리가 3월 이후 처음으로 1%를 상회하자 JP모건(+4.70%), 씨티그룹(+5.75%)등 금융주도 급등했다. 다만, 그동안 상승을 이끌었던 애플(-3.32%), 아마존(+2.49%) 등 대형 기술주는 큰 폭으로 하락 출발 했다. 그러나 애플 공급업체인 무라타가 5G 핸드셋 수요가 급증해 차기 회계연도에 아이폰 판매가 급증 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자 애플이 장중 상승 전환하는 등 실적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였다.

코카콜라(-3.18%)는 330억 달러 미지급 세금 지불해야 된다는 판결을 이유로 투자의견이 하향 조정되자 하락했다. NVIDIA(-5.90%)는 ARM 인수 후 경쟁업체에 대한 서비스 등을 영국 정부가 조사할 것이라는 소식으로 하락 했다. 유나이티드헬스(+4.20%)는 체인지헬스케어(+30.04%)를 인수한다고 발표한 후 상승 했고 체인지헬스케어는 급등했다. 월그린부츠(+4.54%)는 어메리소스버진(+8.60%)에 헬스케어 사업부문을 매각한다고 발표하자 두 회사 모두 상승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3.88%	대형 가치주 ETF(IVE)	+2.29%
에너지섹터 ETF(OIH)	+4.01%	중형 가치주 ETF(IWS)	+3.21%
소매업체 ETF(XRT)	+4.11%	소형 가치주 ETF(IWN)	+5.28%
금융섹터 ETF(XLF)	+4.42%	대형 성장주 ETF(VUG)	-1.09%
기술섹터 ETF(XLK)	-1.72%	중형 성장주 ETF(IWP)	+0.05%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1.24%	소형 성장주 ETF(IWO)	+2.88%
인터넷업체 ETF(FDN)	-1.78%	배당주 ETF(DVY)	+3.95%
리츠업체 ETF(XLRE)	-0.48%	신흥국 고배당 ETF(DEM)	0.00%
주택건설업체 ETF(XHB)	+2.23%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51%
바이오섹터 ETF(IBB)	+1.21%	미국 국채 ETF(IEF)	-0.58%
헬스케어 ETF(XLV)	+1.37%	하이일드 ETF(JNK)	-0.15%
곡물 ETF(DBA)	-0.43%	물가연동채 ETF(TIP)	-0.30%
반도체 ETF(SMH)	-0.31%	Long/short ETF(BTAL)	-2.2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308.45	+2.99%	+8.64%	+4.36%
소재	480.27	+4.09%	+7.23%	+7.55%
산업재	755.34	+2.36%	+2.06%	+0.94%
경기소비재	1,305.21	+0.51%	+0.49%	+2.60%
필수소비재	688.30	-0.07%	-0.48%	-0.34%
헬스케어	1,344.35	+1.41%	+2.70%	+3.35%
금융	506.78	+4.36%	+5.12%	+6.32%
IT	2,225.02	-1.81%	-2.62%	+0.24%
커뮤니케이션	217.72	-0.66%	-1.67%	-2.08%
유틸리티	318.51	+2.46%	+1.89%	+0.44%
부동산	219.02	-0.54%	-2.33%	-4.2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소폭 상승 출발 후 차별화 장세 지속

MSCI 한국 지수 ETF 는 0.14% MSCI 신흥 지수 ETF 는 0.85% 하락한 점을 감안 한국 증시는 0.5% 내외 상승 출발할 것으로 전망한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088.01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

전일 한국 증시는 사상 처음으로 KOSPI 3,000pt 시대를 개막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이 반도체 업종이지만 2 조원 넘게 순매수 한 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그러나 외국인과 기관이 대규모 매물을 쏟아내자 결국 0.75% 하락으로 마감했다. 그런 가운데 미 증시가 블루웨이를 토대로 은행주, 산업재, 철강, 에너지, 소재 업종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고, 특히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 심리가 확산되며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 지수가 3.98%나 급등 한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그렇지만 실제적인 상승은 실적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미 증시의 변화 요인인 추가 부양책 기대 심리 확산,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급등, 테슬라에 대한 목표주가 상향 조정, 애플의 5G 폰 수요 증가 기대 등을 감안 관련 업종과 테마가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한다. 물론 전일 일부 선반영이 되었던 점을 감안 지수는 소폭 상승 출발 후 미국 고용지표 둔화에 따른 경기 회복 속도 부진, 미국 사회 분열 우려 부각 등을 감안 상승폭을 확대하기 보다는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고용지표 위축

12 월 미국 ADP 민간고용 보고서에 고용자수가 전월(30.4 만건)은 물론 예상(13 만건)을 하회한 12 만 3 천건 감소 했다. 이는 지난 4 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점을 감안 고용 악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대기업(-14.7 만건) 중심으로 감소했으며 소기업은 1.3 만건 감소했으나 중견기업은 3.7 만건 증가 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생산이 2.1 만건 감소했으며, 서비스가 10.5 만건 줄었는데 특히 레저 및 접객이 5.8 만건, 무역, 운송 및 유틸리티가 5 만건 감소했다.

11 월 미국 공장재 수주는 전월 대비 1.0% 증가해 전월(mom +1.3%) 보다는 둔화 되었으나 예상(mom +0.6%)을 상회했다. 운송 부문이 전월 대비 2.1% 증가하며 이를 주도했다. 기계 수주도 1.2%, 전기 장비 및 가전 수주는 0.7% 증가 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채금리, 국제유가 상승,

국제유가는 사우디 생산량 감산 발표의 영향이 지속되며 1.4% 상승 했다. 여기에 미 에너지 정보청이 지난주 원유재고가 180 만 배럴 감소 예상을 크게 상회한 801 만 배럴 감소한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다만, 가솔린이 452 만 배럴 증가하고 정제유도 639 만 배럴 증가해 상승폭을 확대하지는 못했다.

달러화는 고용지표가 위축되고 블루웨이브가 현실화 됨에 따라 2018 년 3 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그동안 약세에 따른 반발이 유입되며 여타 환율에 대해 강제로 전환하는 등 변동성을 키운 후 강세폭을 축소하였다. 유로화는 경제지표 개선으로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한편, 역외 위안화는 달러 대비 0.2% 약세를 보이는 등 신흥국 환율도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조지아주 선거 결과 민주당이 의회 권력과 행정부를 장악하는 블루웨이브가 현실화 되자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 심리가 확산되며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3 월 이후 10 년물 국채금리가 1.0%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FOMC 의사록 공개의 영향은 제한된 가운데 장 후반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며 마감 했다.

금은 추가 부양책 확대 기대에도 불구하고 달러화가 반발 매수세로 강제로 전환하자 매물이 출회되며 2.3% 하락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 및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 속 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달러화가 강제로 전환하자 그 폭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29% 상승 마감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50.63	+1.40	+5.48	Dollar Index	89.406	-0.03	-0.65
브렌트유	54.30	+1.31	+5.99	EUR/USD	1.2322	+0.20	+0.20
금	1,908.60	-2.34	+1.36	USD/JPY	103.02	+0.29	-0.16
은	27.042	-2.16	+3.15	GBP/USD	1.3606	-0.15	-0.14
알루미늄	2,038.50	-0.10	+2.39	USD/CHF	0.8789	+0.06	-0.27
전기동	8,037.50	+0.44	+2.26	AUD/USD	0.78	+0.53	+1.48
아연	2,860.00	+1.67	+3.55	USD/CAD	1.2674	+0.04	-0.66
옥수수	495.00	+0.66	+6.22	USD/BRL	5.3023	+0.49	+1.88
밀	647.50	-0.99	+4.69	USD/CNH	6.4514	+0.22	-1.02
대두	1,361.50	+1.08	+5.05	USD/KRW	1085.60	-0.18	-1.01
커피	120.90	-3.36	-3.59	USD/KRW NDF1M	1088.04	+0.08	-0.0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1.027	+7.22	+10.40	스페인	0.044	+1.10	+0.10
한국	1.732	+3.70	+5.50	포르투갈	0.016	+1.40	-1.00
일본	0.021	+1.00	0.00	그리스	0.614	+0.60	-0.40
독일	-0.520	+5.70	+4.90	이탈리아	0.565	0.00	+2.4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